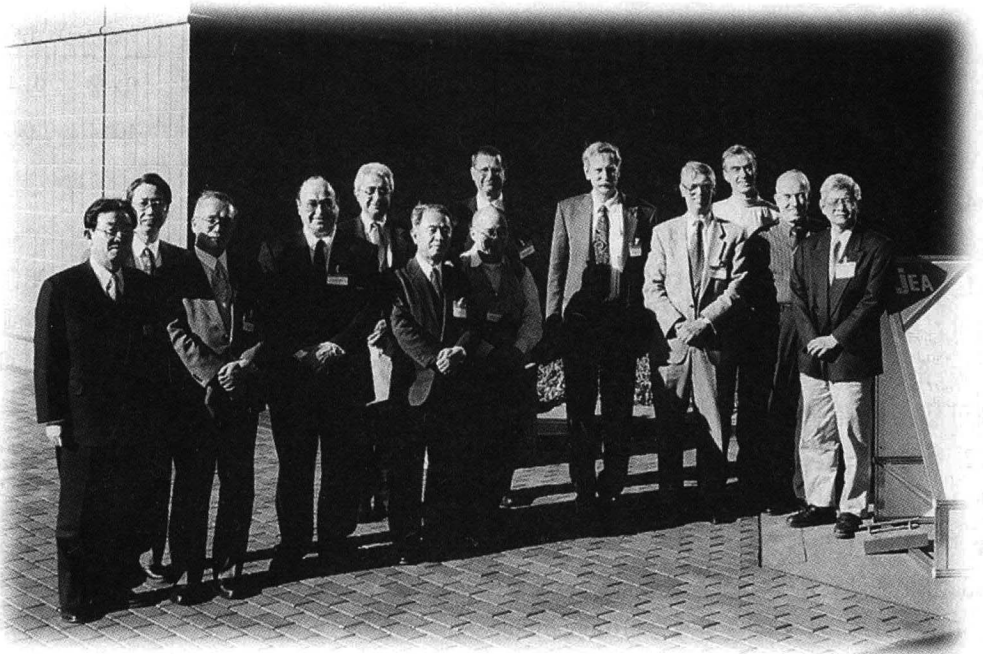


제2차 아세아-태평양 역학회 학술대회 참관기 (第2次 亞細亞-太平洋 疫學會 學術大會 參觀記)

학/회/참/관/기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김 돈 균



제2차 아세아 태평양 역학 학술대회 주요 발표자들

부산 지역에서 역학에 관심있는 여러 교수들과 같이 참가하기로 되어 있었던 학회에 여비와 체재비를 학회측에서 전담하기로 한 필자만이 참석하게 된 것은 갑작스럽게 불어닥친 IMF의 여파 때문이었다.

갑자기 70년대로 되돌아간 듯한 느낌이 들고 향후 학문 발전에도 새로운 문제가 야기될 것 같아 착잡한 심정으로 동경행

KAL에 탑승하였다.

「疫學의 限界性에 대한 挑戰! 이것이 21세기 요구에 충족될 수 있겠는가?」라는 주제로 개최된 제2차 아세아 태평양 역학회 학술 대회는 일본 동경 메이지 생명연수원에서 98년 1월 28일부터 30일까지 3일간에 걸쳐 世界 疫學界의 權威者들이 모여 大盛況을 이루었다.

학술 대회의 일정은 오전에는 研究 結果 發表, 오늘의 話題, 特講, 오후에는 Poster session, 심포지엄 등의 순서로 구성되어 첫째와 둘째날까지 계속되었고, 최종일에는 특강과 심포지엄만으로 구성되어 3일간에 걸쳐 총 160연제 이상이 발표되도록 계획되어 있었다.

또한 역학회 회장인 동경 의대 치과대학 난치병 연구소 Tanaka Heizo 역학 부장의 대회 환영사가 첫째날 오전 8시 30분에 있었는데 펍 인상적이었던 그 대략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선진국에서의 임상의학은 특정 질환의 치료에 제한없는 투자를 하고 있지만 豫防醫學은 全人的인 의료(care of the total person)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冠狀動脈 疾患, 腦卒中, 癌 등의 3大 死因의 질환 관리를 최종 목표로 하여 인류 전체의 건강 증진을 위한 포괄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예방 의학은 인간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삶을 希求하는 사람들이 增加一路에 있는 새로운 양상에 직면하고 있다. 禁煙, 運動, 食品과 飲酒 樣相의 변화 등 생활양식의 변화는 醫療 專門家의 介入에 의한 것이 아니고 사회인들 스스로의 敎養으로 昇華되고 있으며 豫防醫學은 이러한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과학적인 基本 知識을 提供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20세기의 醫學 研究는 집단에서 개체로, 기관, 조직, 세포, 그리고 분자 수준에 까지 이르고 있지만 오늘의 이 학술 대회는 의학이 '포괄적인 의료 제공'으로의 방향으로 전환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나아가서는 닥쳐올 21세기에 대비한, 분자 수준의 의학에서 다시 집단 수준으로 되돌아가는데 적

용할 수 있는 포괄적이고 통일된 역학적인 접근 방법이 개발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역설하였다.

필자는 첫날 4명의 특강 연사 중 한 사람으로 초청되어 "오늘날의 한국 산업보건"이란 표제로 강의하였지만 대학의 사정으로 둘째날까지만 참석하기로 계획되어 있었다.

개회 식에 이어 오전 9시부터 학술 대회가 시작되었는데 연구 발표에는 순환기 질환에 관한 4연제, 오늘의 화제에 대한 보고 4연제, 특강 4연제, Poster Session의 65연제, 심포지엄 6연제 등이었으며 연사는 미국, 영국, 불란서, 중국, 싱가포르, 태국, 칠레, 인도네시아, 한국과 일본 등의 교수들이었다. 첫연제 발표자인 워싱턴 대학의 Nameketa교수는 "재미 교포 일본인들의 순환기 질환에 대한 역학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는데 재미 일본 교포가 본토에 있는 일본인들에 비해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으며, 트리글리세라이드와 저 비중 리포프로테인, 총콜레스테롤 등은 순환기 질환에 대한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내용이었다. 한국에 거주하는 우리들과 재미 한국인 교포와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필자에게는 흥미로운 연제였다.

쌍태아중 출생한 한 아이가 뇌성 안면 마비를 초래한 원인은 쌍태아중의 한 태아가 조기에 사망하였기 때문이었다는 영국 리버풀 대학의 Pharoah 교수의 보고는 쌍태아중 어느 한 태아가 조기에 사망하면 생존 태아는 신생아 시기에 사망할 위험율이 높아지고 계속 생존하면 신경학적 장애를 일으킬 위험율이 높아진다는 내용이었다.

동경의 Juntendo 대학에 있는 Inaba 교수의 특강은 동북 타이랜드에서 발생한 설명

되지 않는 돌발사 증후군(Sudden unexplained death syndrome)에 대한 역학 연구 결과의 보고였는데 필자에게는 생소한 내용이었다. 태국 동북 지방에서는 20~59세의 젊은 연령 층에서 수면 중 갑자기 사망하고 있는 경우를 '돌발사 증후군'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은 인구 10만당 20.8명, 이곳 출신 중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있는 근로자들의 이로 인한 사망률은 10만당 97명으로 70%이상 감소되었다. 출혈성 뇌졸중 발생의 위험 인자는 식염 섭취의 과다, 소량의 육류 섭취와 부족한 1일 식품 섭취량, 동계의 불충분한 주택 난방 등이었다. 1960년부터 10년간에 걸쳐 실시한 cohort study 결과 고혈압은 출혈성 뇌졸중과 허혈성 뇌졸중 양쪽 모두에 위험인자로 작용하고 있으나 저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의 경우는 출혈성 뇌졸중의 발생 빈도는 높이고, 허혈성 뇌졸중의 발생 빈도는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문화생활 향상과 1982년의 국민 건강법 실행으로 40대 중년층에서의 뇌졸중 발생률은 현저히 감소되었으나 노년층에서는 거동 불능의 심한 뇌졸중과 혈관성 치매가 증가되고 있어 그 예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적어도 뇌졸중을 유발하지 않게 하는 지혈 인자의 연구 그리고 재활과 요양을 할 수 있는 시설의 확충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도 곧 이런 문제가 야기될 것으로 생각되었다.

오후에는 일본 역학회의 학술 대상을 수상한 연제 발표에 이어 Harvard대학 Willet 교수의 '식품과 암'에 대한 특강이 있었으나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내용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전립선암이 칼슘 섭취와 관계가 있다는 것이 새로운 정보인 듯 하였다.

오후 2시부터 3시까지는 51개 연제에 대한 poster session이 있었는데 필자의 흥미를 끌었던 것은 일본 Nagoya대학 Fujiwara교수의 치아 수와 생활양식과의 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치아의 조기 건강진단과 치아 특성에 맞는 식사 습관의 개선은 치아 상태의 보전은 물론 연령에 따라 손실되고 잔존하는 치아의 건전한 유지를 계속하게 하는 것과도 깊은 관계가 있다고 제시하였다.

3시부터 이어지는 심포지엄은 총 여섯 연제였지만 이번 학술대회의 주제인 역학의 한계성에 관한 것이 주 내용이었다. 일본 Aichi 대학의 Tomimaga는 역학적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의 한계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데 첫째는 이미 알고 있거나 알지 못하고 있는 혼란 변수가 있을 때 예를 들면 간접 흡연과 대기오염이 폐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처럼 저 농도 유해 요인의 폭로로 인한 미미한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둘째는 전통적인 역학 연구 방법으로부터 얻은 자료와 새로운 위험 인자간의 상관관계를 증명하고자 할 때, 셋째는 집단이 아닌 개인에 대한 위험 수준을 예측하고자 할 때, 넷째, 무작위 추출 개입 연구를 위해서 비공식적으로 참여자의 동의를 얻고자 할 경우, 다섯째, 광범위한 역학적 개입 연구를 위한 연구비를 획득하는 문제라고 하였다. 이런 한계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학자들의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며 이러한 노력이 질병 예방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고 하였다.

존 홉킨스 보건대학원의 Haountune K. Armenian은 연구대상이 지나치게 소수일 때 통계학적인 분석방법은 문제 해결에 부적당한 경우가 많은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Case investigation을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예를 들면 Case based model인 Case cohort approach 또는 Case crossover design 등이라고 하였다.

또한 역학이란 학문은 항상 문제 해결을 위해 도전하는 것이므로 역학자들은 이러한 계속되는 도전에 대비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들을 개발하는데 부단히 노력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저녁 5시 30분에 시작된 참가자들을 위한 Conference Banquet에 참가하는 것으로 필자의 2일간의 제2차 아세아 태평양 역학회 학술대회 참가 일정을 마치게 되었지만 3일간 Hotel East 21 Tokyo에서 부담없이 편하게 숙박을 하면서 한국의 산업보건의 현황을 강의하고 또한 세계 역학자들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여 준 제2차 아세아 태평양 역학 학술대회 Tanaka 회장에 감사하며, 제2차 아세아 태평양 역학 학술대회에 동참하지 못한 동료 교수들에게 이 參觀記를 바치는 바이다.

